

5월, 모두를 위한 가정의 달이기를

TBS

이예진 기자



2021 기자의 세상보기



코로나19로 입양 대기 아동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다.

‘서진(가명)이 떠난 지 94일’
서진의 위탁모 강 선생님의 카톡 화면에는 오늘도 숫자가 하나 더해져 있다. 지난해 봄, 입양의 날을 앞두고 강 선생님 가족이 어렵게 인터뷰에 응했다. 이미 두 아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입양가족이었다. 5월11일 입양의 날 기획취재 인터뷰를 부탁드렸는데, 집에 아이가 한 명 더 있을 줄 몰랐다. 돌이 갓 지난 서진이다. 얼굴만 봐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타고난 재주가 있는 남자아이였다.
기자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선배들

은 말했다. 의사, 변호사, 검사와 달리 기자의 자(者)는 ‘놈’이라는 것이다. 현장에서 서의 기자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 말이 인상 깊었던 것 같진 않은데, 내심 마음을 놀라게 한 건 사실이다. 도대체 여자 기자도 상당수 있는 직업 세계에서 ‘놈 자’를 쓰는 건 무슨 논리란 말인가. 하지만 현장에서는 의도했던 의도 하지 않았든 자연스럽게 반영됐다. 10년을 넘게 이름 뒤에 ‘놈 자’를 붙이고 지냈는데, 서진이네 집에서만큼은 내 성별이 분명히 느껴졌다. 나는 엄마 기자이다.



입양 단체 '동방사회복지회' 김혜경 부장과 함께



두 아이를 공개 입양한 강은정씨네 가족



강은정 / 공개 입양 가족

아이들이 건강하게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보육원에 아이들이 많은 것보다는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죠.

두 아이를 공개 입양한 데 이어 입양 대기 아동들을 위탁해 키우고 있는 강은정 님



촬영 장비에 호기심을 보인 동태에게 쉬는 시간을 이용해 촬영 원리를 알려주는 촬영팀

첫 번째 육아휴직이 끝날 무렵, 인수 인계를 받기 위해 들른 회사에서 나는 마치 물과 기름의 상태와도 같았던 사표를 냈다. 머리는 사표를 내지 말라고 하는데, 가슴은 끊임없이 사직서를 쓰라고 했다. 갓 돌이 지난 큰 아이에게 하루에도 수차례 모유 수유를 했던 때였다. 그렇게 3년여 시간 동안 경력단절을 겪고, 어렵게 다시 들어간 회사에서 나는 올해 초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여전히 내 가슴을 가장 두근거리게 만드는 건 현장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결단을 내리게 한다. 그래서일까. 엄마가 되고 난 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음을 나도 모르게 실감할 때가 있다.

서진이가 입양을 가기 전까지 서진이의 엄마는 강 선생님이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던 강 선생님은 아이들을 참 좋아한다고 하셨다. 하지만 사내 아이만 둘을 키우고 있는 나는 안다. 좋아하는 것과

키우는 것은 때때로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강 선생님은 서진이를 너무나 아끼면 서도 하루빨리 서진이가 새 가족을 만났으면 했다. 입양한 자신의 두 아이보다 서진이를 더 곁에 두고 예뻐했지만, 내일이라도 떠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글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가슴이 미어져 받아들일 수 없는 대목이었다.

강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안 것은, 입양아동에게 있어 입양은 최대한 어렵게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돌이 지나기 전에 가는 것이 아이의 정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 주셨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해 입양아동과 위탁모 선생님들은 심리적으로 두 배, 세 배 무거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국내보다 해외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해외 입양 비율이 높은 국내 입양 환경에서 결국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아이들이었다. 입양 프로세스는 멈췄지만, 아이들은 하

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언제 만날지 모르는 새 가족을 기다리며 아이와 정을 하루하루 더 쌓아가는 강 선생님의 가슴 한편엔 행복이, 또 다른 한편에 시린 감정이 교차했음은지도 모른다. 강 선생님은 아이들의 기저귀를 수년째 갈다 보니 팔목이 아프다면서도, 아이가 떠나면 그 큰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말로 설명을 대신했다.

인터뷰 정리를 위해 한 마디 한 마디 다시 듣기를 하면서, 그 어떤 현장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기자는 한순간에 엄마인 사람이 됐다. 아이를 키워보니 웃음 한 번, 숨소리 한 번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뻔히 아는데, 이별할 걸 알면서도 심장 바닥까지 정을 내주는 위탁모의 마음은 무엇이란 말인가.

동방사회복지회를 시작으로 홀트아동복지회 등 규모 있는 입양단체들을 차례로 들렀다. 조리원의 신생아실처럼 입양 대기

아이들의 침대에는 신생아보다 몸집이 큰 아이들이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교대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아이들을 케어하는 근무자들은 제때 교대도 못하고 체력도 인건비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아이들에게 진심이 아닌 사람이 없었다.

지금까지 나는 현장에서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작업을 기계적으로 반복했다. 질문은 답으로 지우고, 그 답은 또 다른 질문이 지우고를 반복해 늘 현재를 다뤄왔다. 그렇기에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면 들을수록 질문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것이 현명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입양과 관련된 모든 답들이 질문들을 채하게 만들었다.

입양기관의 복도에서 해마다 이어져 온 해외 입양아들의 고국 방문 사진은 정점을 찍었다. 사춘기이거나 사춘기를 막

지난 청소년들이 환한 표정을 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사진들. 아이들의 미소가 눈에 먼저 들어왔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사춘기 감성으로 입장 바꿔 생각하지 않아도 공감의 되지 않았다. ‘이 아이들은 천사일까.. 왜 얼굴에 조금의 원망도 없이 저렇게 사람 좋게 웃고만 있는 거지?’ 아이들이 한국을 향할 때의 마음을 떠올리려는 찰나, 잠시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았다. 어른으로서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지 못한 스스로를 원망하면서 리포트에 쓰지도 않을 사진들을 한참 동안 바라만 봤다.

사실 길 가는 사람들에게 입양에 대해 물어보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절반이 채 안 될 것이다. 그 사이 우리 사회엔 입양과 관련된 안 좋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어른들의 잘못이다.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런데도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은 또래 다른 아이들이 반 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는 달리 훨씬 더 잦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입양가족을 맞으려면 건강해야 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데리고, 수 십, 수백 번을 찾았을 소아 병원이지만, 홀트아동복지회에 마련된 검진센터 관계자들은 마치 상급병원의 진중함을 떠올리게 했다. 환자에게 있는 그대로의 것을 말하되, 희망을 보게 해야 하고, 자신의 업무는 진지하고 무거운 상태. 대기 중의 중력이 건물 밖과 사뭇

다르게 느껴진 이유이다.

해마다 돌아오는 입양의 날 기획취재로 시작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현장에 다가갈수록 조금도 알팍해지고 싶지 않았다. 관악구의 베이비박스로 이어진 현장 취재. 두 아이 모두 자연분만을 한 나는 출산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출산 후의 컨디션만큼은 몸이 기억하는 듯하다. 입원 한 번 해본 적 없을 정도로 건강했지만, 아이를 낳은 뒤에는 수개월 동안 팔목에 보호대를 하고 생활했다. 마디가 성치 않는다는 말을 실감했다. 베이비박스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몸 상태의 산모들이었다. 서울 시내 이렇게 경사진 골목길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가파른 콘크리트 길이었다.

누군가는 아이를 꼭 안고 걸어오고, 누군가는 걸어올 힘이 없어 택시를 타고 아이에 대한 자신의 마지막 선택을 하는 곳이었다.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졌다. 너무 감정에 몰입해 취재하는 건 아닌가 하면서도, 스스로가 내딛고 있는 땅이 너무나 좁게 느껴졌다. 더 넓게 딛고, 멀리 바라봐야 하는데도 내 시야가 너무 좁게 굳어진 것 같았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필리핀에서 날아온 사회복지사.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른바 ‘코피노’들을 현지에서 돕는 현지 소장이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자 귀국한 지 얼마 안 돼 입양기관에서 만난 소장은 필리핀

현지에서 아이들이 한국어 공부를 좋아한다고 했다. 자신의 이름이 한글로 쓰인 조끼를 입고 행복해한다고 했다.

하지만 결핵과 같은 병으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제때 치료를 못 받아 어린 나이에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다. 새삼 가정의 달이 쓸쓸하게 느껴졌다. 다시 언제 필리핀으로 돌아갈지 모를 소장의 눈에서 대화를 하는 동안 어느새 굵은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아이들이 생각난다는 이유에서였다. 눈앞의 이슈를 덮느라, 오래되고 커다란 우리 사회 깊숙한 염증에 왜 나는 진작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

아이들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태어난 것으로도 축복이어야 한다. 보고 있으면 세상 걱정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이다. 이들이 자라면서도 건강하게 웃음 지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다.

취재가 끝나고도 강 선생님과 안부를 주고받았다. 선생님과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하나는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 중에 입양가족이 두 분이나 계시니 만나거든 작고 큰 제도 개선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해달라는 것이었다. 다행히 국정감사 기간 입양가족인 조오섭 의원을 만나, 여러 얘기를 나누던 중에 먼저 입양정책에 대해 얘기했다. 이를테면 전기세와 같은 부분들이다.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는 여름이면 전기세가, 겨울이면 난방비가 많

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반 가정의 많게는 서너배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요즘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전기세 할인 대상에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세 돌까지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탁모 가정의 경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코로나 상황 속에 집에만 있어야 하는 강 선생님이 여름이 오기 전부터 여름을 걱정했던 이유였다. 조오섭 의원은 입양한 자녀가 이제 많이 컸다며, 그런 혜택이 있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나만 해도 혼자 있을 때는 선풍기를 틀지만, 아이들이 있을 땐 에어컨에 손이 간다. 엄마 마음인 것이다. 위탁모 가정도 다르지 않다.

두 번째 부탁은 아이들과 함께 방송국 견학을 하는 것이었다. 지역별로 입양 가족 모임이 있는데, 입양 가족 모두가 함께 견학을 오고 싶다고 했다. 나는 기사를 마무리하자마자 전략기획실로 가 견학 담당자한테 절차를 문의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상황에는 견학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난 약속했다. 견학이 재개되면, 반드시 방송국 안내를 직접 해드리겠다고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난 내 자리에서 미래 기자와 PD, 아나운서, 작가 후배님들에게 최선을 다해 안내할 생각이 다. 내가 고등학생 때 여러 기자 선배들을 만나 기사를 꿈꿨듯이, 강 선생님의 자녀와 그들의 친구들 중 일부는 나와 같은 꿈을 꿨으면 하는 바람이다. 📍